

## 인간과 딱정벌레<sup>1)</sup>

정종철<sup>2)</sup>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예로부터 딱정벌레는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 왔다. 자연생태계 내에서 곤충 자체에 이로운 곤충, 해로운 곤충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 이로운 곤충을 ‘익충’, 해로운 곤충을 ‘해충’이라 부른다. 꽃가루받이를 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는 벌, 나비 등이 대표적인 익충이며 사람의 피를 빠는 모기, 병균을 옮기는 바퀴벌레 등이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딱정벌레는 곤충 중에서도 가장 많은 종 수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 천적곤충

대표적인 천적곤충에는 무당벌레가 있으며 식물에게 해로운 진딧물을 잡아먹는다. 풀색 명주딱정벌레는 나무에 해를 입히는 나방의 애벌레를 사냥하며, 먼지벌레과나 반날개과의 곤충들도 밭에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나방의 애벌레나 굼벵이 등을 사냥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딱정벌레 종류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

1)Human and Beetls

2)JEONG, JongChel,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E-mail: jjchel@korea.kr

## 화분매개곤충

꽃무지류, 꽃하늘소류는 과일이나 채소가 열매나 씨를 맺도록 꽃가루받이를 도와준다.



그림 2. 꽃가루받이를 하는 호랑꽃무지

## 약용곤충

풍뎅이류의 애벌레인 굼벵이는 ‘제조(蟻螬)’라는 약재명을 가졌으며 예로부터 간질환에 쓰였다. 가뢰류에서는 ‘칸타리딘’이라는 물질을 뽑아내어 피부병의 약으로 사용하였으며 물방개, 물매암이 등은 어린아이들의 경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길앞잡이, 반딧불이, 하늘소 등도 약재로 사용한다.



그림 3. 반묘(斑猫)\_가뢰 종류



그림 4. 제조(蟻螬)\_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 식용곤충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영양물질이 풍부한 500여 종의 식용 딱정벌레가 알려져 있는데, 열대우림에서는 풍뎅이나 하늘소류 등의 애벌레를 식용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중국이나 태국에서는 딱정벌레를 이용한 튀김이나 통조림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림 5. 태국\_물방개튀김



그림 6. 제주 풍물시장\_장수풍뎅이 애벌레

## 사료곤충

거저리의 애벌레인 ‘밀웜’은 애완동물로 키우기도 하지만, 양서류나 파충류,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원숭이 등에게 먹이로 제공되기도 한다.



그림 7. 밀웜

## 애완곤충

사슴벌레과, 장수풍뎅이과의 딱정벌레가 애완용 곤충으로 인기가 많다. 이들은 기르기 쉬우며, 몸집이 크고 화려한 빨과 큰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그림 8. 넵툰 장수풍뎅이(브라질)



그림 9. 장수풍뎅이

### 장식용 곤충

우리나라에서는 고대 신라시대 때 비단벌레의 딱딱한 날개를 이용하여 의복, 말안장 등을 장식하였다. 서양에서도 쇠똥구리, 바구미, 비단벌레 등의 화려한 딱정벌레를 왕족의 장신구나 부적, 머리장식, 부채, 목걸이 등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딱정벌레들은 단단한 겹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보다 다양한 장신구 등에 이용되어 왔다.



그림 10. 이어폰



그림 11. 마우스



그림 12. 저금통



그림 13. USB 저장장치



그림 14. 비단벌레 목걸이



그림 15. 비단벌레 브로치



그림 16. 무당벌레 모양 화장품케이스



그림 17. 장수풍뎅이 유리장식품



그림 18. 시계 열쇠고리



그림 19. 열쇠고리



그림 20. 열쇠고리



**- 비단벌레 장식 치마(복원품)**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비단벌레의 날개를 꽃모양으로 장식한 ‘옥충식치마’로 금관총에서 발견된 옥충식을 근거로 제작하여 통일신라시대의 가슴에 올려 입는 치마에 달아 장식하였다.



**- 비단벌레 장식 말안장 가리개(복원품)**

1973년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는 비단벌레의 딱지날개를 이용한 말안장 가리개, 발걸이, 허리띠 꾸미개 등이 발견되었다. 비단벌레의 날개를 떼어 내어 하나하나 펼쳐 붙이고, 그 위에 금동판으로 씌운 형태인 이 유물들은 수많은 비단벌레가 사용되었다. 1,500년 전 신라시대에 딱정벌레를 이용하여 왕족이나 귀족들의 장식품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안장 가리개 복원품은 일본에서 약 1,000마리의 비단벌레의 겹날개가 기증되어 목공예, 가죽공예, 옷칠공예, 금속공예 등의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2006년에 제작되었다.



**그림 21.** 황남대총 출토품\_말안장 가리개



**그림 22.** 말안장 가리개 복원품(국립경주박물관)